

국내산 닭고기 맛, 수입 닭고기와의 차별화로 종계업 살리자

◇ 취재 / 김종준기자

1. 육용종계 업계 현황

육용종계의 2000년 12월까지 입식수수는 1999년에 비하여 3.26% 증가한 3백64만수로 품종별로는 로스 1백8만4천수, 아바에이카 1백2십6천수, 에이비안 3십4만3천수, 코브 7십4만5천수, 피터슨 5만6천수가 입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용종계를 생산하는 GPS농장인 삼화농원, 중원농장, 하림 등의 육용종계 시장점유율은 삼화농원이 66.6%, 중원농장이 11.6%, 하림이 21.7%를 나타내어 삼화농원의 육용종계 보급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AI와 호흡기성 질병 발생이 잦다

최근 육용종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는 AI, IB, ND, 가금티푸스로 그 원인과 특정한 농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종계장은 어느 부문보다도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질병발생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농장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육용종계장에서 유행하는 AI는 내부 감염보다는 외부감염 확률이 높은 질병중의 하나이다. 1999년에 AI가 발병한 J육용종계장의 경우 평소 방역을 철저히 하였던 농장이었다. 처음 IB가 감염된 증상이 나타나면서 수탉의 폐사가 암탉에 비하여 많았고 계사간에는 1~2일 간격으로 같은 증상이 전파되었다. 산란율은 20~40%까지 떨어지다가 2~3주가 되면서 서서히 산란율이 회복되었지만 질병 발병전의 산란율은 회복하기 못하여 종계 폐사때까지 상당한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다. 가금티푸스는 한번 발병하면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종계를 도태시켜야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AI가 한번 발병한 농장은 해가 갈수록 강독형과 변이형으로 발전하고 있고, 일단 발병한 농장은 다시 발병하게되며 발병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것이 수의사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최근 종계·부화업자에 의하면 종계 질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종계장 외부오염과 환우, 급격한 외부 온도변화에 의한 스트

레스에 의한 항병력 약화라고 지적한다.

외부에 의한 농장오염은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어서 단기간의 방역대책보다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종계 환우는 병아리 가격 하락시기에 맞추어 주령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계에 많은 스트레스를 줄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추운 겨울철에는 환우전과 같은 생산성이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이다. 또한 최근에는 폭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농장이 인근 종계장으로 종계를 이동시킬 때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산란을 저하와 기온이 급강하하여 환기불량에 의한 호흡기성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백세미에 의한 ND,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병의 질병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종계·부화업계의 피해는 클 가능성이 있다.



3. 병아리가격 생산비선 이상 기대

2000년 12월 병아리 부화율은 약 79.4%를 나타내었고 종란생산비는 150~180원, 병아리 생산비는 300~350원으로 조사되어 병아리 생산성은 드러나게 저하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2000년 하반기부터 400원대 이상의 생산비 이상을 유지하던 병아리 가격이 12월 19일부터 320원으로 하락되더니 지난 1월초에 들어서

면서 170원까지 급락하였다. 병아리가격 하락의 주원인으로 종계 사육수수가 많았던 것보다는 육계농가의 사육일령이 2~3일 늘어나면서 일정기간 동안 병아리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월 7일까지 저가를 계속하고 있던 병아리가격은 7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하여 8일에는 병아리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간혹 100원까지 매매가 되었다. 9일부터 길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으로 병아리 분양이 시작되었고, 의외로 종계와 실용계 농장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병아리 수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지난 15일에는 420원으로 생산비선 이상을 확보하였다.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종계업자 조사에 의하면 약 35만수의 종계계사가 무너져 피해를 입었고 종란 120만개 이상이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2~3월까지 병아리가격은 생산비선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4. 수입닭고기 35% 증가

수입닭고기는 무역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0년 12월까지 66천톤이 수입되었는데 이 물량은 1999년에 비하여 35%가 증가한 것이다. 2000년 12월까지 수입된 닭고기를 병아리로 환산한다면 약 6천6백만수(육계1.5kg, 도체율 68%기준)가 된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에 의하면 2000년 병아리 생산량은 3억7천7백수로 추정되는데 수입닭고기로 인한 병아리 시장점유율은 17.5%에 이른다. 물론 실제 병아리 유통량을 감안하면 이보다 약간 높아질 수 있다.

수입된 닭고기중 미국산과 태국산이 가장 많았지만 앞으로 중국과 태국의 닭고기 수입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의 경우 2000년 8월에 119톤을 수입하였던 것이 11월말에는 1천5백톤으로 늘어났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양계산업을 육성시켜 수출물량을 증대시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매년 닭고기 수입량은 늘어갈 전망이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종계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5. 종계·부화업 전망

대부분 종계·부화업자는 이번 폭설로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는데 안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종계·부화업자에 의하면 폭설로 인한 종계사 붕괴와 종계 폐사 및 산란율 저하, 종란 폐기는 단지 병아

리 가격 상승이라는 호재만이 있는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종계·부화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을 보면 황사와 기온이 상승되는 3월이면 바이러스성 질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AI와 IB가 종계에 발생되면 병아리 상승에 의한 이익 보다는 종계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정부에서 백세미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3월까지 끝내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향이 종계업체의 의견대로 백세미 생산을 중단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질병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육계가격이 고가로 형성될 경우 수입닭고기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입닭고기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수입닭고기를 사용하는 닭갈비와 햄버거, 닭꼬치, 부위전문판매업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의 원료가 수입닭인지 국산인지 모르고 먹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입닭고기인지 알면서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수입닭고기 유통을 방치하는 사이 소비자의 입맛은 수입닭에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를 부추기는 수입업체들이 일부 계열업체나 사료업체로 의심되고 있어 종계·부화업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병 발병과 닭고기 수입이라는 악재만 제거된다면 향후 병아리 가격은 생산비 이상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종계·부화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표1. 국가별 닭고기 수입현황(2000년 11월까지 누계) (단위 톤)

국가 부위	미 국	태 국	중 국	기 타	합 계
다리	48,984	3,613	186	450	53,233
가슴	173	1,946	942	0	3,061
날개	1,316	2,002	24	12	3,354
기타	340	461	365	0	1,166
미절단생동	236	0	0	0	236
합계	51,049	8,022	1,517	462	61,050

종계·부화업체는 안전된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2~3월의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매년 증가하는 수입닭고기에 의한 병아리 시장 잠식율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일부 종계·부화업자들이 닭고기 수입업체와 수입 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간접적으로 퇴출하기 위하여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안정된 생산기반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종계·부화업체가 참여하여야 한다.

앞으로 종계·부화업체의 발전은 위해서 종계질병 차단과 수입닭고기와 국내산 닭고기 맛의 차별화로 수입닭고기 수입량을 줄여가고 더불어 육계실용계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실용계농장이 ND와 같은 법정전염병으로 오염된다면 육용실용계 시장 안정은 있을 수 없고 또한 병아리 수요는 매년 급증과 급락을 반복하게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이 국민 소비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에 종계·부화업체의 농가경영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면 부실화된 경영체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건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5)374-8461~2, 팩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